



박지성 “챔스리그 우승하고 싶다”

英 스카이스포츠와 인터뷰서 ‘자신감’ 퍼력

“유니폼 판매용 선수 아닌 실력 증명할 것”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이 것이 내가 맨유를 떠나지 않는 이유다”

최근 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하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승리 도우미로 주목받고 있는 박지성(29)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영국 스포츠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와 맨체스터 지역 신문인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 등 영국 언론들은 17일(한국시간)

일제히 ‘박지성, 절대 맨유를 떠나지 않는다’, ‘박지성,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맨유에 남아있다’ 등의 제목으로 박지성과 인터뷰 기사를 크게 다뤘다.

전날 치러진 터키항공과 맨유의 공식 스폰서 체결식에 참석한 박지성은 현지 취재진의 집중적인 인터뷰 세례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맨유를 떠나지 않는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박지성은 지난 2008년 모스크바에서 웨시와 치른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언스리그 결승전 엔트리에서 제외됐을 당시 심정을 묻는 말에 “그날 밤에 정말 큰 실망을 했었다. 그래서 맨유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맨유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그것이 내가 맨유에 남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맨유는 언제나 또 다시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할 것”이라며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향한 강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박지성은 특히 “상업적인 이유로 내가 맨유에 입단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아시아 선수가 유럽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며 “어찌 뛰어난 선수가 되고 싶다는 소망보다 더 중요한 요소다. 내가 유럽을 선택한 이유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인터밀란, 첼시 꺾고

챔스리그 8강 올라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강호 인터밀란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를 꺾고 2009-201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랐다.

조제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인터밀란은 17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스텁퍼드브리지에서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원정경기에서 후반 33분에 터진 ‘흑표범’ 사뮈엘 에토오의 결승골에 힘입어 첼시를 1-0으로 물리쳤다.

지난달 25일 1차전 홈경기에서 2-1로 이겼던 인터밀란은 1, 2차전 합계 3-1의 완승으로 8강 진출 티켓을 얻었다.

반면 첼시는 한때 팀을 지휘했던 무리뉴 감독의 인터밀란에 덜미를 잡혀 16강 탈락의 쓴맛을 맛봤다.

인터밀란은 무승부만 거둬도 8강에 오르

는 반면 첼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경기에 나섰지만 승리의 여신은 인터밀란의 편이었다.

전반을 득점 없이 마친 양팀은 후반에도 공방을 이어갔으나 인터밀란의 최전방 스트라이커 에토오가 승부를 결정 짓는 한 방을 터뜨렸다. /연합뉴스

지난 시즌 FC바르셀로나에서 이브라히모비치와 트레이드로 세리에A로 옮긴 에토오는 후반 33분 웨슬리 스네이더를 후방에서 길게 올려준 패스를 받은 뒤 상대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었고 상대 골키퍼 로스 턴불과 1대 1로 미주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밀어 넣어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

순천시청 조성제-우형곤 개인복식 우승

대만오픈 청산컵 국제정구

조성제, 혼복복 우승 2관왕

순천시청 조성제-우형곤 조가 제7회 대만오픈 청산컵 국제정구대회 정상에 올랐다.

지난 2008년부터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조성제-우형곤 조는 최근 대만 대중시 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개인 남자 복식 결승에서 일본팀을 5-3으로 누르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또 조성제는 장영애(문경시청)와 짝을 이룬 혼합복식에서도 금메달을 획득,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우형곤은 개인 단식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12일부터 4일간 대만 대중시 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미국, 네덜란드, 필리핀, 태국, 대만 등 7개국이 참여하는 대표적 국제대회이다. 한국팀이 우승한 것은 이번 대회 이번 종 하



제7회 대만오픈 청산컵 국제정구대회 남자복식에서 우승한 조성제(맨 왼쪽)·우형곤(맨 오른쪽) 선수와 김태성 감독.

〈순천시청 제공〉

나로 꽉히고 있다.

또 우승의 주역 순천시청팀의 국제적 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순천시청팀을 맡고 있는 김태성 대표팀 감독은 “올해 첫 출전 대회에서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선수들이 동계훈련을 열심히 한 결과”라며 “이같은 여세를 몰아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더욱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daum.net〉

휠체어컬링 4강 보인다

페럴림픽 伊 완파 4승2패 공동 2위

한국 휠체어컬링 대표팀이 2010 벤쿠버 장애인 동계올림픽에서 이탈리아를 완파하고 4강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한국은 17일(한국시간) 벤쿠버 페럴림픽 센터에서 벌어진 대회 예선 풀리그 6차전에서 이탈리아를 9-3으로 여유 있게 따돌렸다.

한국은 이로써 4승 2패로 캐나다(5승 1패)에 이어 미국과 함께 공동 2위가 됐다. 앞으로 3경기가 예정된 가운데 공동 4위인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3승 3패)과 승차가 1경기 라서 방심할 수 있지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은 사실이다. 반드시 승수를 쌓아야 하는 경기인 만큼 초반부터 집중력이 예상된다.

한국은 1엔드에 대거 3득점한 뒤 2엔드에

2점을 보태 5-0으로 달아나며 기선을 제압했다. 주장 김학성이 2엔드 마지막 포석에서 과녁 앞에 완벽한 방어막을 치면서 이탈리아가 손도 못 쓰고 2점을 헌납하도록 한 것이 경기의 하이라이트이자 승부처였다. 한국은 3, 4엔드에 1점을 쳤지만 5엔드에 또 대거 3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쇄기를 봤다.

한국은 17일 최약체 스위스와 세계 최강 캐나다를 상대로 7, 8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스위스와 캐나다를 연파하고 예선 리그 1위나 2위로 4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1위나 2위가 유력한 캐나다와 토너먼트 1라운드에서 맞붙지 않는다면 은메달이 확보되는 결승 진출이 가시화할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4강전은 1위와 4위, 2위와 3위가 한판 대결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50·SBS스포츠), 〈넥센 : 롯데〉(13:00·MBCESPN)

▲V리그 〈GS칼텍스 : 도로공사〉(16:50·SBS스포츠·KBSN SPORTS), 〈우리개피탈 : 현대캐피탈〉(18:40·KBSN SPORTS)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 5차전 〈LG : 동부〉(18:50·SBS스포츠·MBCESPN)

배구聯 ‘포지션 폴트’ 사고

경위 파악 뒤 책임자 문책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14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KEPCO45과 대한항공의 경기에서 발생한 ‘포지션 폴트’ 사고에 대해 경위를 파악한 뒤 관련된 심판, 감독관, 기록원을 문책하기로 했다.

당시 사고는 KEPCO가 2-9로 끌려가던 때부터 시작됐다.

이영준이 서브를 넣을 차례에서 교체 투입된 외국인 선수 조엘리 서브를 넣었고 이렇게 순서를 어긴 채로 경기가 10-15까지 진행됐다.

이 때까지 주·부심과 경기감독관, 기록원, 양팀 벤치 모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뒤늦게 기록원이 서브 순서가 잘못된 사실을 발견했고 마나길 경기감독관은 경기를 중단했다. 규정에 따라 KEPSCO가 포지션 폴트를 범한 뒤 득점한 8점을 모두 감점 처리돼 코어는 10-18에서 순식간에 2-15가 됐다. KOVO 관계자는 “기록원이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바로 알리지 않아 경기가 그대로 진행됐다”면서 “심판, 감독관, 기록원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 경위서를 받아보고 향후 경기 출전 정지 등 문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지션폴트=배구 경기에서 서브와 자리를 이동 순서가 잘못된 것을 말한다. /연합뉴스